

권두언

I. 심리학 연구의 흐름에 대한 일고

금세기 접어들어 가장 괄목할 만하게 발전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가운데 한가지가 심리학(心理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 고대의 Platon 시절부터 인간의 정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이상적 내지 철학적 성향을 띤 것이었다. 오늘날 서구나 북미의 여러 심리학자들 내지 정신병 치료자들이 고대철학자들의 사상, 이를테면 Platon의 광기(mania) 같은 것을 지나치게 현대 심리학적 지평을 가지고 접근하므로 그 본래의 형이상학적 의미가 오해 내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Platon은 물론 근세철학에서 정신철학의 첫 단계인 주관적 정신철학을 운위한 Hegel이나 '권력에의 의지'를 설파한 Nietzsche 등도 인간 심리 연구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들의 연구는 인간이나 세계, 그리고 역사에 관한 자신들의 철학을 펼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었지 인간 내면세계에 탐구의 굴착역이 놓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학문사를 볼 때 심리학은 그것이 지난 세기 중엽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오랜 준비의 과정을 축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학적 연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일어나 그것이 '과학'으로 등장한 것은 1860년 경이었고, 그런 발전에 디딤돌의 역할을 한 것이 Darwin의 「種의 起源」(Origin of Species)이었다. 1859년에 나온 이 책은 인간에 관한 과거의 관점을 일변시키는 결과를 주었다. 즉 Darwin 이전에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靈長), 즉 인간은 영혼(靈魂)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고 있었는데, 이 혁명적인 학설은 인간과 동물간의 근본적 차이를 없애버리고 전자를 후자의 한 종류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인간에 대한 연구도 자연에 대한 일반적 연구의 노선을 따라서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이 복잡하기는 해도 다른 중

류의 생물체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종의 기원」이 나온 다음해 독일의 과학자 겸 철학자인 Gustav Fechner는 심리학의 학문적 기초를 이룩하였다. 그는 정신 현상 내지 마음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며 양적(量的)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심리학은 그 시작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문사회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의 영역 속에 한 모퉁이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세기 후반 유럽의 지성계에는 생물학과 함께 심리학 연구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Louis Pasteur와 Robert Koch의 세균학, Greger Mendel의 유전학이 나왔다면, 심리학에서는 Wundt의 실험 심리학, Wertheimer와 Ehrenfels의 형태심리학, 그리고 Freud의 정신분석학이 등장했던 것이다.

Freud는 역학(力學)의 법칙은 인간의 신체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격(人格) 내지 인생(人生)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심리학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인간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 안에 있어서의 에너지의 변형과 교환을 문제시하는 다이나믹한 심리학을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다.

Freud 이후 금세기 중반에 이르는 동안 심리학 연구에는 세계 지성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탁월한 학자들이 대거 배출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Freud를 이는 소위 ‘Wien학파’의 Alfred Adler, 그리고 Carl G. Jung, Jean Piaget, Erich Fromm, Viktor E. Frankl 등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이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20세기의 심리학계는 여러 갈래의 학파들이 인간 심리와 행동의 분석에 자기 식의 정견들을 내세우고 있다. 일찍이 Wundt의 구조주의, 심리내용보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가진 Dewey 계열의 기능주의, 의식 연구보다 객관적이고 행태적인 현상연구에만 전념해온 Watson과 Skinner의 행동주의, 또 행동주의가 갖고 있는 요소주의에 반기를 들고 심리적 현상의 연관적 결정성을 내세운 Koffka, Köhler, Lewin의 형태심리학, 그리고 Freud와 Jung의 정신분석론, 인성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결정요소에 관심을 가진 신(新) 프로이드학파, Piaget의 조작적 방법론 등, 이

러한 학파들은 그 연구의 관심주제 방법론, 지향점 등 여러 측면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간심리현상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세기 심리학은 자기를 기존의 사실, 임상적인 지혜, 그리고 철학적인 사변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수량적이며, 경험주의적인 과학으로, 또 인간과 사회의 여러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 영향을 주는 학문으로 자처하고 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없는 인간 심리현상이나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심리학은 소위 내재주의적 심리학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상의 여러 현상 가운데 인간의 심리만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포착하거나 어떤 전형화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것은 종교적이나 초월적 의식을 접어두고 일상적인 측면만 두고 보더라도 수리적 측정이나 형태론적 분석의 그물에 다 걸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에 심리연구의 묘미와 신비, 그리고 핵심이 놓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이 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심리학 연구의 이런 현상은 결국 인간과 동물을 구조적 연속선상에서 보는 다윈식의 패러다임이 그 근원이 되는 것이다.

II. 기독교 심리학의 3대 과제

기독교 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진다. 첫째, 성경적 심리학을 연구 개발하는 작업이다. 성경에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에 대한 많은 표현과 내용이 담겨있고 그것은 인간 심리이해에 대한 진리와 바른 해답을 준다. 우선 성경에 나타난 인간정신 내지 심리에 대한 개념어(概念語)들만 보더라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함을 알 수 있다.

구약의 nefesh, ruach, nesamah, leb 등은 육체를 나타내는 basar와는 대칭되는 인간정신 내지 영혼에 대한 개념어들이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psyche, nous, pneuma, kardia 등의 용어들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감사와 저주, 용서와 복수, 포용과 증

오 등 다양한 심리표현들이 담겨있다. 이런 개념과 표현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심리학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앙도 우선은 마음에 자리하는 것이므로 이것과 결부하여 인간심리의 심층을 이해하는 도움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 심리학은 그렇게 연구된 바른 심리학적 결과를 가지고 그릇된 심리학적 이론과 인간론에 대한 변증적 역할을 수행할 과제를 지닌다. 인간심리를 역학적인 틀을 가지고 연구하는 현대 심리학의 일반 경향은 이미 영혼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심리에 대한 틀린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Freud의 무의식의 밑바탕에 있는 무의식(無意識)의 세계를 얘기해도 그들은 인간 심리의 종교적 근거나 동인(動因)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인간 심리를 어떤 하나의 편향된 성향(性向)이나 특정한 요소로 해석하는 것도 그릇된 심리학적 출발인 것이다. Eros나 Thanatos를 주장하는 Freud나 권력에의 의지를 주장하는 Nietzsche와 Adler, 선(禪)을 통한 정신 분석 내지 치료를 내세운 Fromm이나 Suzuki 등의 이론을 우리는 비판해야 한다. 나아가 심리적 치유나 심리학적 처방으로 무슨 종교적 해탈이나 구원을 준다고 외치는 거짓종교들의 주장에도 내용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힌두교 계열의 Yoga 행위나 신비주의 종파들의 비의(秘儀)는 물론, 기독교 권내에서도 심리치료법을 성령운동이나 회개운동으로 오인(誤認)케 하여 못 성도들을 현혹케하는 Tres Dias 운동 등도 유념해야 한다. 종교나 신앙을 어떤 경우든 심리의 문제로 환전시키는 일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은 인간심령에 역사하시고, 또 신앙의 좌소(座所)는 마음에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심리학적 문제로 귀착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셋째, 기독교 심리학은 인간이 변화된 영혼, 선향 마음, 올바른 인격, 그리고 뜻있고 바른 행위를 하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모든 학문 분야가 그러하듯이 심리학도 인간 심리에 대한 바른 이해나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가 선향하고 바른 마음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실천적인 과제를 지닌다. 말하자면 기독교 심리학은 인간이 성경적 자아상(自我像)을

수립하고 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감정을 바르게 통제하고 의지를 바르고 끈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격을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심리학은 나아가 기독교 학문의 토대를 위한 심리학적 인간론적 기초도 제공한다. 말하자면 기독교 교육학을 필두로 기독교 사회학, 기독교 철학(이를테면 Dooyeweerd의 'IK론'), 상담학, 아동학, 가정문제, 전도학, 신앙론 등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그래서 각 학문의 인성을 바로 이해하고 이동을 잘 양육하고, 불신자의 신앙인의 심리를 바로 파악하며 나아가 사회현상이나 세속 종교를 아는 데 긴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는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순수심리학보다 우리 회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응용심리학의 몇 분야를 생각해 보았다. 최근의 심리학 추세는 심리학적 이론을 응용하여 아동, 교육, 재판, 범죄, 정치, 경제, 기업, 임상, 목회 등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발달되어 가고 있다. 이번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응용심리학의 주요한 분야들인 아동심리, 정신치료, 목회심리 등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연구한 주옥같은 논문 3편을 실게 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순수심리학의 연구를 자극하고 조장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연구에 종사하는 더 많은 학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세속 심리학이나 학문을 하는 자들은 학문함의 방향이나 학문체계의 의미의 구심점이 없기에 곧잘 혼란과 공허에 빠지고 만다. 일전 불란서 파리의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생을 접은 Gilles Deleuze(1925-1995)처럼. Foucault가 “언젠가 20세기는 Deleuze의 세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호언했어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과 그들의 학문은 끝없는 무의미의 공간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글과 학문함은 진리의 광맥을 캐기는 광부들처럼 엄숙하고 뜻깊은 것이다.

1995년 가을
편집인 전광식